

지회소식

[대구지회] 대구지역 산업진흥에 5년간 투자 계획

대구는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의 육성 등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그동안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지역업체,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할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섬유·의류, 기계·메카트로닉스, 생물 등 3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4개 사업 추진이 그 내용으로 총 7741억원이 투자된다.

내용별로 보면 섬유·의류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6011억원이 투자되는 포스트밀라노프로젝트는 6개 분야 31개 사업이 추진된다. 섬유산업을 고도화 시킨다는 취지로 추진되며, 밀라노프로젝트의 후속 사업이다.

기계·메카트로닉스 분야에서는 IT, BT와 더불어 21세기 3대 기초기반기술인 NT연구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750억원을 투자해 경북대학교내에 나노부품실용화센터를 건립하게 된다.

나노부품실용화센터는 나노부품 및 소재 개발, 표준화·계측지원 및 대행, 전문인력 양성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되며, 메카트로닉스부품산업화센터는 메카트로닉스 부품의 연구개발, 시험평가 지원, 관련 기술정보의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부산지회] 지방 인터넷기업들 “뭉쳐야 산다”

부산·전북·경남·인천·제주·광주 등 전국 6개 지역 인터넷기업협회는 올 상반기중에 공동 브랜드를 도입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 공동 브랜드 도입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전북 등 6개 지역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들은 지난 12월부터 1·2차 모임을 갖고 공동 브랜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르면 올 상반기중 공동 브랜드를 도입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지역 사무국장단은 각자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 브랜드 운영방안 등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역협회 사무국장들간에 단일안을 만들지 못할 경우 협회 회장과 부회장 등 운영진이 참여하는 확대회의를 통해 단일안을 만들 방침이다.

한편 지역 인터넷기업의 공동 브랜드 논의는 지난해 8월 부산과 전북협회 관계자간에 처음 논의됐으며 여기에 경남과 인천 등이 동참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대돼 왔다.

[전북지회] 전주소프트타운 지정 기본협약 체결

전북 전주시 중노송동 정보 영상벤처타운 일대가 ‘소프트타운’으로 지정돼 소프트웨어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전주시는 지난 15일 전주시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이 전주 정보 영상벤처타운 일대를 소프트 타운으로 지정하는 ‘소프트타운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정보 영상벤처타운이 소프트타운으로 지정되면 정통부로부터 올해 IT산업진흥기관의 초기운영 및 타운 활성화 사업비 명목으로 21억여원을 지원받고 내년부터 매년 10억원씩 지원받게 된다. 전주시도 내년까지 30억여원을 들여 지역 S/W산업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협회 단신 ·

협회, 이스라엘 Gemini Venture Funds 초청 투자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협회는 지난 20일 이스라엘 Gemini Venture Funds 초청 투자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벤처기업협회의 글로벌 지원센터에서 평가, 선정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이스라엘 Gemini Venture Funds의 투자 설명회가 마련됐고, 이와 더불어 한국의 벤처캐피탈 회사들과의 교류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